두보의 시는 어떻게 고전이 되었는가

1. 두보(杜甫, 712~770)라는 사람

- 자는 자미(子美), 호는 소릉(少陵). 시성(詩聖)으로 불리기도 하고, 이백(李白)과 병칭하여 이두(李杜)라고 일컫기도 하며, 두목(杜牧)과 비교해서 노두(老杜)로도 불림.
- 712년(현종 즉위년) 호남성 공현(鞏縣) 출생. 진대(晉代)의 두예(杜預)의 후손이며, 초당기(初唐期)의 시인 두심언(杜審言)의 손자.
- 14세(725), 기왕(岐王), 이구년(李龜年) 등과 알게 됨.
- 24세(735년) 무렵 과거 시험을 준비함.
- 25세(736)~30세(741), 齊趙 지역(산동, 하북 지역)을 유람함.
- 30세(741) 무렵, 낙양으로 돌아와 수양산 아래에 거처함. 결혼.
- 33세(744), 낙양 거주 시기, 여름에 李白을 만나서 교유함. 가을에 양송 지역을 여행. 이듬해 이백과 齊魯 지역을 여행함. 가을에 이백과 노군에서 만나 지내다가 이별함. 이 해에 양옥환이 貴妃로 책봉됨.
- 35세(746), 10년 간의 유람을 마치고 장안으로 돌아옴. 부친 사망. 경제적으로 곤란해짐. 747년에는 과거에 참가했지만 낙방.
- 43세(754), 가족을 장안 교외 下杜城으로 이주시켰다가 겨울에 다시 봉선으로 이주시킴.
- 44세(755), 10월에 河西縣尉로 제수되지만 취임하지 않았고, 우위솔부병조참군으로 전위되어 취임함. 11월, 안록산의 난이 발발함.
- 45세(756), 2월에 장안으로 돌아옴. 6월에 가족을 羌村으로 피난시킴. 6월 현종이 피난을 가고, 양씨 일가는 피살됨. 두보는 반군에 잡혀서 장안에 억류됨.
- 46세(757), 명작 「春望」을 지음. 5월에 좌습유(左拾遺)에 임명됨. 11월에 가족을 장안으로 이주시킴.
- 47세(758), 좌습유 직위 박탈됨. 이후 낙양과 화주 사이를 오가며 살아감.
- 49세(760), 성도의 완화계로 가서 초당을 세움. 52세에 낭주로 이사 갔던 적을 빼면 54세(765) 5월까지 성도에서 거주함. 이후 기주(夔州), 강릉, 공안, 악양, 담주 등을 전전함.
- 59세(770), 늦봄 담주에서 이구년과 재회함. 「강남에서 이귀년을 만나다(江南逢李龜年)」을 씀. 4월에는 군벌의 반란을 피해 형주로 피난함. 침주를 거쳐 양양으로 가다가 장사에 머무름. 겨울에 고향으로 가는 상강 기슭에서 타계.

* 春望

國破山河在　　나라는 깨어져도 산하는 그냥 있어
城春草木深　　성에 봄이 드니 초목 우거지는데

感時花濺淚　　시절이 아파 꽃을 보고도 눈물 뿌리고
恨別鳥驚心　　이별 한스러워 새소리 듣고도 가슴 철렁인다.
烽火連三月　　봉화가 석 달이나 이어지니
家書抵萬金　　가족의 편지야 만금의 값어치.
白頭搔更短　　흰머리는 긁을수록 더욱 적어져
渾欲不勝簪　　이젠 정말 비녀도 이기지 못할 듯.

* 江南逢李龜年

岐王[1]宅裏尋常見　　기왕의 집에서 자주 보았고
崔九[2]堂前幾度聞　　최구의 집에서도 몇 번을 들었던가?
正是江南好風景　　때마침 강남의 좋은 풍경
落花時節又逢君　　꽃 지는 시절에 또 그대를 만났구려.

2. 두시에 대한 책들

- 송나라 곽지달(郭知達)의 《구가집주(九家集註)》, 청(淸) 전겸익(錢謙益)의 《두시전주(杜詩箋注)》, 구조오(仇兆鰲)의 《두시상주(杜詩詳註)》

- 고려시대에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이 크게 영향을 받았고, 조선 초기 유방선(柳方善)이 杜詩에 뛰어났음.
- 중국인 채몽필(蔡夢弼)의 저작인 《두공부초당시전(杜工部草堂詩箋)》의 일부를 세종 때에 간행한 『두공부초당시화(杜工部草堂詩話)』가 간행되었고, 황학(黃鶴) 보주(補註)의 《두공부시보유(杜工部詩補遺)》 등이 복간(複刊)됨.
-『두공부초당시화(杜工部草堂詩話)』는 세종 13년(1431) 밀양에서 간행. 조선 초기 경학을 장려하면서 사장(詞章)을 억제하던 경향에 문제가 생기자 세종이 시학(詩學)을 장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간행된 책임. 두보의 내용성과 예술적 성취를 부각시킴으로써 조선의 문인들에게 杜詩의 뛰어난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됨. 현재 남아있는『두공부초당시화(杜工部草堂詩話)』는 번각본으로 남아있는데, 약 9백여 자가 빠져 있다든지 오자가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두시의 장려에 큰 역할을 했음.
-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의 작품이 특히 높이 평가되었는데, 《찬주분류두시(纂註分類杜詩)》가 5차례나 간행되었음.
- 성종(成宗) 때는 유윤겸(柳允謙) 등이 왕명을 받아 《분류두공부시언해(分類杜工部詩諺解:杜詩諺解)》를 간행.
- 諺解의 목적에서 밝힌 두보 시의 장점(조위曺偉의 서문) : ① 世敎에 도움이 됨. ② 시대를 아파하고 임금을 사랑함[傷時愛君]. ③ 충성에서 비롯한 분노가 격렬함[忠憤激烈]. ④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됨.

---

1) 기왕 : 예종의 넷째 아들이면서 현종의 동생. 현종이 즉위하면서 기왕에 봉해짐. 문인들을 좋아하였음.
2) 최구 : 최척(崔滌). 현종과 가까워서 비서감의 신분으로 궁중에 자주 드나듬.

- 초간본 : 1481년(성종 12), 조위, 유윤겸 등이 주축이 되어 언해.

- 중간본 : 1632년(인조 10), 오숙(吳翽)의 주관 아래 대구부사 김상복(金尙宓)이 주관하여 간행.

- 이식(李植)의 《찬주두시택풍당비해(纂註杜詩澤風堂批解)》(26권)

-『우주두율(虞註杜律)』 문제 : 1471년(성종2) 충청도 청주에서『우주두율』2권이 복간(覆刊)됨. 이 책은 세조 때의 공신이었던 구치관(具致寬)이 주도했음. 이 책은 원나라 우집(虞集)이 두보의 시 중에서 칠언율시 100여 편을 뽑아서 주석한 것. 주희의『시집전(詩集傳)』의 체제를 모방한 것. 사본으로 전하던 것을 명나라 주웅(朱熊)이 1434년(선덕9) 판각을 하고 1443년 임정(林靖)이 교정하고 석박(石璞)이 새긴 중각본이 나옴. 청주의 복각본은 중각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 조선을 통틀어 가장 널리 읽힌 두시 관련 책. 주제별 분류.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